

개발원조위(DAC) 개발평가 네트워크 회의 결과

OECD/DAC 산하 개발평가 네트워크(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제6차 회의가 Mr. Finbar O'Brien 의장(아일랜드) 주재로 6. 27 ~ 28간 파리에서 개최되어 원조효과 공동평가, 평가 능력 개발, 변화하는 개발원조환경과 평가와의 관계, 평가도구 및 기준 등이 협의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핵심 요지

- 파리 선언 모니터링을 위해, 수원국 주도의 평가와 공여국 주도의 평가 등으로 추진중인 공동평가(joint evaluation) 작업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 다만 수원국 주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말리, 볼리비아 등 동 대상국(자발적 참여)들이 DAC 회원국들의 주요 원조 집중국

(donor darling)인 점을 감안하여, biased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 중국은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수원국 주도의 공동 평가 작업(84개 프로젝트 사업 대상)을 2004-2005년간 실시하여 금번회의에서 동 평가 작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문제로는 평가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평가결과가 중앙정부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중국은 과기부 산하 국립과학기술평가센터(NSSTE)가 총괄적으로 원조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 지난 2006년 4차 회의에서 승인된 평가의 질적 기준(Evaluation Quality Standards)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동 기준 개선 및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추후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II.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탄자니아 등이 참여한 공동 평가 작업에 대한 소개가 있는 등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성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국별 지원전략 수립 및 공동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공여국간 공동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수원국의 평가 능력 개발(evaluation capacity building)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DAC 회원국의 원조효과 공동평가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DAC의 평가기준과 지침 수립 과정에 우리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평가기준을 우리의 평가제도 운용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특히 개발 클러스터 차원에서의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주요 원조 공여국과의 공동 평가 작업 발굴 검토 등을 통해 향후 DAC 가입 전 평가 작업에 대한 선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다자기구 차원의 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캐나다(현재 다자원조 35%), 덴마크(현재 다자원조 40%) 등은 양자 및 다자원조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구두

로 소개한 바, 우리나라도 동 회원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9개 회원국(프랑스 참가 예정)으로 구성된 다자기구 성과 측정 네트워크(Multilateral Organizations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MOPAN)가 다자기구간 협력관계 행태에 대한 연례 보고를 수행하고 있음을 영국, 캐나다 등이 지적했다.

III. 주요 논의 내용

1. 원조효과성의 공동평가

가. 파리선언 이행 공동평가 후속 논의(Joint Evaluation follow up to the Paris Declaration)

- 수원국 주도 국별 평가(country-led country level evaluations)
-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말리, 필리핀, 세네갈, 남아공, 스리랑카,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 등 10개국 수원국 주도의 국별 평가(10개 공여국이 협조)는 공동의 모니터링 활동 및 기타 입수가능한 지식에 기초하여, 주로 수원국 및 공여국의 행동 변화를 평가한다.
- 발견된 사실의 비교가능성과 취합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평가체계/framework에 따라 평가를 설계하되, 국별 특성과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 평가는 수원국내에서 관리되고, 수원국 정부 혹은 관심 있는 공여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그룹(reference group)의 지원을 받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 공여국 주도 본부 평가(donor-led HQ level evaluations)

- 파리선언 이후 원조기관의 정책, 전략, 인센티브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발견된 사실의 비교가능성과 취합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평가체계/framework)에 따라 평가를 설계하되, 국별 특성과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 평가는 공여국 혹은 수원국을 포함한 이행관계자를 포괄하는 자문그룹(reference group)의 지원을 받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베트남과 덴마크가 공동 의장)
- 참가국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UK, UNDP 등이다.(미국과 일본은 불참)

■ 중장기 주제별 연구 계획(medium to long-term programme of thematic studies)

- 공동의 평가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발견 사항들을 평가해야 한다.
-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파리선언 모니터링 Joint Venture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 종합보고(synthesis report)

- 중장기 주제별 연구 계획, 수원국 평가 및 공여국 평가 결과 발견사항 및 교훈점을 종합하여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 GBS 공동평가 후속점검(Follow up to 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

■ GBS Report(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 : 1994-2004)는 24개 공여국과 7개 파트너 국가(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말라위, 루안다, 우간다, 니카라과, 베트남)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평가이며, 2006년 5월 발간되었다.

■ GBS 평가 후속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은 관계 공여국 및 수원국에 배포할 설문안을 제출하였다.

- 동 설문 분석 결과는 모니터링 보고서로 제작되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 방글라데시 국별지원 공동 평가

■ 세계은행(WB)은 ADB, DFID, 일본(동 4개 기관 및 국가가 대방글라데시 원조 총액의 80% 차지) 등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방글라데시 국별 지원 공동평가 사업의 진전 현황을 보고하

면서, 타 회원국의 지원과 자문을 요청했다.

2. 평가 능력개발(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 평가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실시된 베트남-호주 모니터링·평가 강화 프로젝트(VAMESP)가 소개되었다.
- 3년간 진행중인 베트남의 평가능력개발 제도 및 활동 내역, 교훈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 사무국은 2006년에 실시된 회원국의 평가능력개발 현황 조사 결과를 상기시키며, 향후 평가능력개발 사업을 주도할 task force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요망했다.

3. 변화하는 개발원조 환경과 평가(Evaluation in a Changing Aid and Development Context)

- 빈곤완화전략의 채택, 공동의 지원 전략 수립, 신흥 공여국의 등장, 파리선언 등, 변화된 개발원조 환경에 따라, 원조효과 평가를 위한 공동의 국별원조전략 수립 및 공동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평가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따라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재론키로 하였다.

4. 평가 기준 및 규범

가. 평가의 질적 기준 적용

- 2006. 3월 제4차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시험 적용기간을 갖기로 승인된 평가의 질적 기준(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나. 파급효과 평가(Impact Evaluation)

- 파급효과 평가의 기본 개념과 기법 등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된 task force인 파급효과 평가네트워크(NONIE)의 워크숍이 지난 2007. 5. 24 ~ 5. 25간 헤이그에서 개최되어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2007년 10월중 워싱턴에서 WB 주제로 후속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CPPB) 평가 지침의 개발

- 노르웨이는 DAC 개발평가네트워크와 분쟁평화개발협력(CPDC) 네트워크 합동으로 개발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활동 평가 지침 초안을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0월까지 확정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 1년간 시험 적용기간을 거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라. 세계 및 지역 파트너십 사업(GRPPs)의 평가

- 세계은행은 독립평가그룹(IEG)이 지난 2007년 1월 발간한 세계 및 지역 파트너십 사업 평가 보고서(Global and Regional Partnership Program Evaluation Sourcebook)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 세계식량계획 평가 기능 동료심사 (Professional Peer Review of the Evaluation Function of the World Food Programme)

- WFP의 요청에 따라, UNDP와 UNICEP에 이어, 세번째 다자기구 평가 작업이 추진중이다. 2007.1월 SIDA가 WFP의 평가부서 OEDE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심사 패널을 주

도하기로 동의하였으며, 2007.5월 ~ 9월간 자료 수집을 거쳐, 10월중 보고서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바. HIV/AIDS 평가 작업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 개발평가네트워크 의장은 세계기금(Global Fund), AIDS 구호를 위한 미대통령 긴급프로그램 (US President's Emergency Programme for AIDS Relief), 백신·면역을 위한 세계연대(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거나, 실시 예정인 평가 작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개발평가네트워크 차원의 동 분야 평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를 희망했다.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